

2023 새해 이렇게

박우량 신안군수

# “1섬 1뮤지엄...사계절 문화예술 꽃 피는 신안 만들겠다”



### 친환경 전략사업·해양생태 중심·기본소득 확대 등 역점 추진 퍼플섬·수선화 섬·수국의 섬 이어 라일락 섬·홍매화 섬 조성

“군민들이 섬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신안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새해 인터뷰에서 “신안군은 지난해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립갯벌 세계유산 보전본부 유치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바탕으로 군정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군수는 내년 주요한 군정 방향으로 ▲문화 예술이 꽃피는 섬 ▲사계절 꽃피는 섬 ▲친환경 고소득 전략사업 집중 육성 ▲기후변화에 대응한 해양생태 중심 도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통한 기본소득 확대 ▲명문교육 육성 ▲맞춤형 교통복지 실현 등을 꼽았다.

박 시장은 먼저 “민선 7기부터 추진중인 ‘1섬 1 뮤지엄’ 사업은 세계 유명작가들이 참여하는 뮤지엄 5개를 포함해 총 24개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만들고 있다”며 “조성된 뮤지엄을 통해 군민

들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안문화재단을 조속히 발족해 전시기획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에서는 올해 6월 아나기 유키노리의 안좌 플로팅뮤지엄, 10월 올라퍼 엘리야스의 도초 대지 문화시설, 12월 세계적인 철조각가 앤서니 고프니가 함께하는 비금 바다의 문화시설 등이 완공되면 총 20개 뮤지엄이 불거리를 제공한다.

박 군수는 ‘사계절 꽃피는 섬’ 정책을 통해 섬에 꿈을 입혀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미 신안은 각 읍면별로 특색있는 꽃과 나무를 식재하고 있다. 퍼플섬과 수선화의 섬, 맨드라미 섬, 수국의 섬에 이어 올해는 향기의 섬 증도, 라일락의 섬 지도, 홍매화의 섬 임자도, 조팝나무의 섬 고이도 등에도 각각의 특색을 가진 꽃 축제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꽃을 더한 섬 정책은 산림공원 조성과 미세먼

지 차단숲, 치유의 숲, 생활밀착형 숲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쉼터로도 활용될 것이라고 박 군수는 덧붙였다.

박 군수는 이어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소득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으로 신안군 특성에 맞는 농가 소득원 개발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만성적인 일손 부족 해소 방법으로 밭작물의 식재에서 수확까지 기계화를 추진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농업용 중장비 및 드론 조종사 면허 취득사업 등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업경쟁력을 높여 갈 것이라고 했다.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해양생태의 중심 신안을 만들기도 올해 중점 정책 중 하나이다. 신안갯벌은 지난 2021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 2022년에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의 신안군 유치로까지 이어졌다. 박 군수는 군민과 함께 신안갯벌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면서 갯벌의 경제성,

환경성 등을 부각시켜 한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지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후변화 대응은 ‘생존의 문제’라며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권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배출권 거래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를 위해 무공해 승용·화물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 추진과 함께 공영버스를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전기버스로 교체하여 온실가스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박 군수는 현안으로 꼽히는 흑산공항건설 사업에 대해 “예상했던 시기보다 다소 늦어진 2월 중 공영위원회 개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년에는 흑산공항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군수는 끝으로 “군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 도 귀 기울이고, 주민을 응대하거나 업무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모든 일에 긍정적인 사고로 임하며,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는 안된다는 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영광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으로 10% 할인받으세요”

영광군이 경유 자동차 소유자의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과 납부자 편의 제공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온라인 연납 신청·납부 홍보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과 9월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1월에 선납하면 연간 납부하는 부담금의 10%를, 3월에 선납하면 상반기 개선부담금의 10% 할인해 주는 제도로, 납부 후 소유권이전이나 말소 등록을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 영광군에 등록된 차량은 연납 신청·납부 할 수 있으며,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탁으로 납부 가능하고 신규 신청자는 위탁을 통해 연납 신청 후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

연납 신청·납부는 인터넷 위탁스(www.wetax.go.kr)로 신청 가능하며,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1월 연납은 16일부터 31일, 3월 연납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영광군청 환경과(061-350-5334)로 하면 된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지난 2일 열린 완도 수산가공품 라오스 선적식에 참여한 신우철 완도군수 등 관계자들이 수출되는 제품을 들여보고 있다.

## 완도 청정 수산가공품 라오스 첫 수출길

### 47개 품목 5000만원 어치 선적

완도 청정해역 수산물로 만들어진 수산가공품이 라오스 수출길에 올랐다.

완도군은 지난 2일 완도군 농공단지 바다명가 제2공장 앞에서 라오스 비엔티안 소재 콕메가 마트로 완도 수산물을 첫 수출하는 선적식을 가졌다

선적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를 비롯하여 완도군의회 허공희 의장, 조영식 부의장, 조인호 의원, 김양훈 의원, 박재선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수출 기업 6곳 대표도 참석했다.

이날 전복 절편과 해조 곡수, 전복 차우더, 모듬 해초, 김, 미역 등 총 47개 품목, 약 5000만 원의 물량이 선적됐다.

이번 수출은 지난 11월 라오스 시장 개척단 파견의 후속 조치로 ‘행정-수출 기업-해외 바이어’ 간의 약 50일간의 지속적인 화상 회의와 꾸준한 관리를 통해 이뤄낸 것이다.

특히 그동안 라오스에 없던 대형 유통 체인 콕메가 마트 오픈과 함께 라오스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다양한 완도산 제품을 선보이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

군은 현지의 더 많은 소비자들이 완도 특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2월 초 콕메가 마트 매장 내 시식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콕메가 마트는 4300평 규모로 1호점을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안에 지난 12월 중순 오픈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해남군, 공공일자리 8개 사업 222명 모집

해남군은 오는 9일까지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대상자 222명을 모집한다.

사업별 모집인원은 ▲중장년 희망내일(MY JOB)찾기 30명 ▲공공일자리(주요 관광지 시설 등 환경정비) 70명 ▲공공일자리(읍면 유희지 꽃밭 조성 및 도로변 환경정비) 96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26명이다.

참여 대상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중장년은 만 50~64세)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지역공동체 65%, 1인 120%) 이하, 주민등

록세대 기준 재산(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등)이 4억원(지역공동체 3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군 경제산업과(061-530-5865)로 문의하거나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일자리지원센터(온라인) 및 소통넷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세월골

## “농업인 삶의 질 향상·지역발전에 최선”

### 박형수 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장

“지역 농어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제16대 목포무안신안지사에 취임한 박형수(54·사진) 지사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 농업인의 동반자로서 사업의 성과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공사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안 비금면 출신인 박 지사장은 1995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해 영산강사업단 공무원, 전남지역본부 기반사업부장, 고흥 스마트소리팜 혁신밸리 추진단장 등을 역임했다. 축적된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농어촌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대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

